# 2017년 해경 간부후보 해설

## 1번

[정답] ①

* 흥선 대원군의 개혁

흥선 대원군은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즉,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정치)와 삼군부(군사)의 기능 회복하였으며 대전회통의 편찬 등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농민 봉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정을 개혁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은결을 색출하여 전정을 바로잡고, 군역 제도를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하는 호포제(동포제)로 개혁하고, 환곡제를 사창제(면민의 공동출자 운영)로 개혁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영조의 서원 개혁 정책을 참조하여 서원 정리를 단행하였다. 원래 서원은 선현에 대한 봉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고 있었다.

흥선 대원군은 사액서원 중 47개소만 남기고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와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1871).

## 2번

[정답] ③

* 강화도 조약 이후 외국에 파견된 시찰단

강화도 조약(1876.1)이 체결된 뒤 조선 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리기무아문(1880.12)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두어 외교, 통상, 재정, 군사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군영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신설하였다(1881, 교관 일본인).

이에 따라 김기수(1차, 1876)와 김홍집(2차, 1880)이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와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임오군란 직후 1882년 8월에 박영효를 3차 수신사로 보냄)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이어서 정부는 박정양, 어윤중 등을 젊은 관리들을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하여(1881.4) 여러 정부 기구와 산업 시설, 문화 시설 등을 시찰하게 하였다. 이들은 귀국 후 각자 여행기와 시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었다.

또, 정부는 청에도 김윤식을 영선사로 하여 젊은 학생과 기술자들을 파견하여(1881.9) 톈진에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하였다. 비록 학생들은 근대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년 만에 돌아왔으나 이를 계기로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세워졌다(1883).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5)에 따라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1883.7). 민영익, 홍영식이 이끄는 보빙사 일행은 서양 국가에 파견한 최초의 사절단으로 40여일의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박람회, 병원,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등을 시찰하였다.

## 3번

[정답] ③

* 갑신정변(1884.12) 개혁정강 14개조

1. 흥선 대원군을 빨리 귀국시키고 종래 청에 대해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권을 제정하여(신분제 폐지)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地租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한다.
4. 내시부를 없애고 그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5. 탐관오리 중에서 그 죄가 심한 자는 처벌한다.
6. 각 도의 환상(환곡)을 영구히 받지 않는다.
7. 규장각(외척 세도 정치의 기반으로 변질)을 폐지한다.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9. 혜상공국(보부상 특권 기구)을 혁파한다.
10. 귀양살이하거나 옥에 갇혀 있는 자는 적당히 형을 감한다.
11. 4영을 1영으로 합하되, 장정을 뽑아 근위대를 설치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재정의 일원화).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입헌군주적 요소).
14. 의정부와 6조 외에 필요 없는 관청을 없앤다.

① 동학농민운동(1894) 당시 폐정개혁 12조 중의 하나로 토지제도 개혁 요구이다.
② 갑오개혁과 관련이 있는 홍범 14조(1894.12) 중의 하나로 재정의 일원화와 관련이 있다.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지만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의 시작점에 유의해야 한다).
④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통해 건의한 헌의 6조(1898.10) 중 하나로 자유민권과 관련이 있다.

4번
[정답] ①

* 조선의 법전 연대기

조선은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썼다. 건국 초기에 정도전은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조준은 경제육전(1397)을 편찬하였으나, 통일적인 조종지법의 필요성을 느꼈다.

세조 때(1455)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되었다(1484년 완성, 1485년 반포).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후기까지 법률 체계의 골격을 이루었다. 이 법전의 편찬은 조선 초기에 정비된 유교적 통치 질서와 문물제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기가 많이 지남에 따라 후속 법전도 마련되었다. 1746년(영조 22)에는 각종 법령 중 영구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법령만을 골라 별도로 <속대전>을 편찬(영조가 직접 서문을 지어 간행)하여 시행함으로써 또 하나의 법전이 나타났고, 1785년(정조 9)에는 <경국대전>(원)과 <속대전>(속) 및 <속대전> 이후의 법령을 합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만든 <대전통편>(증)이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의 법령을 추가한 <대전회통>이 조선왕조 최후의 법전으로서 1865년(고종 2)에 이루어졌다

5번
[정답] ③

*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조선 후기에는 양반 상호간에 일어난 정치적 갈등으로 어느 한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가 전개되었다. 권력을 잡은 일부 양반을 제외하고 다수의 양반은 이 과정에서 몰락하였다. 정권에서 밀려난 양반은 관직에 등용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향촌 사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향반이 되거나 더욱 몰락하여 잔반이 되기도 하였다.

향촌 사회에서도 사회 경제적 변화로 신분 변동이 활발했다. 양반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는 부를 축적한 농민이 지위를 높이거나 역의 부담을 모면하려고 납속과 공명책 등의 합법적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사칭하여 양반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환부역조, 모칭유학). 노비 또한 군공과 납속 등을 통하여 부단히 자신의 신분을 상승 시키고 있었다.

③ 조선은 사회 신분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천제의 원칙에만 입각하여 운영되지는 않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 간의 차별을 두는 반상 제도가 일반화되었다(법제화되지는 않음).

6번

[정답] ①

*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은 한반도 전 지역에 고루 퍼져 있으며, 주로 큰 강 유역이나 해안 지역에서 발견된다. 연대가 가장 이른 곳이 제주도 고산리 유적이다.

신석기 시대 유적(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등)에서 발굴된 유물에는 간석기와 낚시, 바늘 등의 뼈 도구가 있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아가리가 넓고 밑이 뾰족)가 널리 사용되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뼈낚시, 그물 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었고, 돌창, 돌화살 등으로 사냥을 하였다. 한편,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취하여 먹는 생활을 하다가, 뒤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돌괭이로 땅을 일구고 조, 피 등을 재배하여 돌낫, 뼈낫 등으로 추수를 하였으며, 돌갈판에 갈돌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또, 가락바퀴(방추차)로 실을 뽑고, 뼈바늘(골침)로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운 원형의 움집에서 살았다(양양 오산리 유적이 유명). 그리고 같은 핏줄의 씨족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나아가 몇 개의 씨족이 모여 부족을 이루었다. 즉, 이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달리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족장이 농사, 사냥 등 생산 활동을 지휘하였다.

① 대가야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철제 무기나 갑옷 등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7번

[정답] ①

* 신라 법흥왕의 업적

법흥왕(514~540)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제도를 정비하고 이차돈의 순교를 통하여 불교를 공인(527)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마지막 왕 구해왕)를 정복하여 낙동강 하류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532).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② 고구려 장수왕(413~491)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하며 남진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427).

③ 신라 진흥왕(540~576)은 소백산맥을 넘어 적성(충북 단양)을 점령하고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며 작성 주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단양 적성비를 건립하였다(551).

④ 지증왕(500~514)은 이사부를 시키어 우산국(울릉도)를 정벌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키었다(512).

8번

[정답] ④

* 조선 시대의 불교 정책

성리학이 주도 이념이었던 조선 시대에 불교계는 크게 위축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사원이 소유한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회수하여 집권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두터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태조 때부터 도첩제를 실시하여 승려가 되고자 하는 출가를 제한하였다. 세종 때에는 교단을 정리하면서 선종과 교종 두 종파에 모두 36개 절만 인정하였다.

사원에 대한 국가적 통제는 강하였으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욕구는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여,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왕족의 명복을 비는 행사가 자주 시행되어 불교는 명맥을 유지하였다. 세조 때에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고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을 펴서 일시적으로 불교가 중흥되기도 하였다.

성종 이후 사림의 적극적인 비판으로 불교는 점차 왕실에서 멀어져 산간 불교로 바뀌었다. 명종 때에는 문정왕후의 지원 아래 일시적인 불교 회복 정책이 펼쳐진 결과, 보우(普雨)가 중용되고 선교 양종이 부활되고(1551) 승과가 부활되기도 하였다(1552). 16세기 후반, 휴정(서산대사)과 같은 고승이 배출되어 교리를 가다듬었고, 임진왜란 때 승병이 크게 활약함으로써 불교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원의 경제적 기반 축소와 우수한 인재의 출가 기피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9번

[정답] ③

* 경국대전이 발표된 성종 대의 업적

- 조선은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썼다. 건국 초기 태조(1392~1398) 대에 정도전은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조준은 경제육전(1397)을 편찬하였으나, 통일적인 조종지법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세조 때(1455)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되었다(1484년 완성, 1485년 반포).

- 성종(1469~1494)은 호학 군주로 예문관에서 집현전 후신으로서의 홍문관(1478)을 분립시켜 경연을 전담케 하며 홍문관을 학문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였다. 그 외에 독서당제(1471)를 운영하여 젊은 문신들의 학문연구를 고취하고, 성균관에 존경각을 짓고 경적을 소장시켜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세조 때 이시애의 난(1467)으로 폐지되었던 향촌자치 기구 유향소를 부활시켜 사림의 지지를 받았다(1488).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과전법~직전법 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양반 관료가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에는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관수관급제, 1470).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은 여러 국가적 차원의 편찬 작업이 완성되는데, 서거정 등이 삼국이래로의 시문선집 <동문선>(1478),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1481), 역사서인, <삼국사절요><1476), <동국통감>(1485)을 편찬하였고, 성현 등은 음악서인 <악학궤범>(1493)을 편찬하였으며, 신숙주 등은 국가의례서인 <국조오례의>(1487)를 완성하였다.

10번

[정답] ①

* 신라 시대에 세워진 비석들에 대하여

- 포항 중성리 신라비(지증왕-501년 또는 눌지왕-441년): 현존 최고(最古) 비석, 재산 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 내용 기재

- 영일 냉수리 신라비(지증왕, 503): 영일 지방의 재산 상속 분쟁을 판결해주는 내용. 중신회의가 지도로 갈문왕에 의해 주재된 것으로 되어 있어 6부와 관등, 갈문왕 등을 알 수 있다.

- 울진 봉평비(법흥왕 11년, 524): 법흥왕 자신이 동해안 지역인 울진에 순행하여 인근 지역 산성에서 화재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노인법(奴人法)에 관한 내용 수록

- 단양 적성비(진흥왕, 550,551년): 한강 상류의 적성 점령에 대한 야이차 등 그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포상하고 위무하는 내용.

- 창녕비(진흥왕, 561년): 척경비 또는 순수비. 낙동강 유역 창녕의 비화가야 정복.

- 북한산비(진흥왕, 555~568년경): 순수비. 한강 하류 정복. 김정희 고증.

- 황초령비(진흥왕, 568년): 순수비. 신라의 함경도 지역 진출 입증. 김정희 고증.

- 마운령비(진흥왕, 568년): 신라가 함경도 원산, 함흥 지역까지 진출한 것을 알 수 있고, 진흥왕 순수비 중 가장 뚜렷한 관직, 인명이 나타나고, 신라인들의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교 사상이 나타남. 최남선 고증.

유교 사상이 나타남. 최남선 고증

11번

[정답] ②

* 후삼국에 대하여

10세기로 들어오면서 지방에서 성장하던 견훤과 궁예는 신라 말의 혼란을 틈타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견훤은 전라도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후백제는 차령 산맥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여, 그 지역의 우세한 경제력을 토대로 군사적 우위

를 확보 할 수 있었다. 또, 중국 후당, 오월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그러나 견훤은 신라에 적대적이었고, 농민에게 지나치게 조세를 수취하였으며, 호족을 포섭하는 데 실패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궁예는 신라 왕족의 후예로서, 처음에는 북원(원주) 지방의 도적 집단을 토대로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 지방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예성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는 세력이 커지자,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대동방국을 의미)으로 바꾸었다가(904) 다시 태봉으로 바꾸고(911),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궁예는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였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고 왕건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궁예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918).

㉠ 신라 하대의 유학자들은 도당유학생들이 많아 유교사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한층 높아져 선종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불교·풍수사상·도교 등과의 융합도 시도하였다(예: 최치원).

12번

[정답] ②

* 고려의 대외 항쟁 연대기

10세기 초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과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처음에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993). 그러나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994). 이후에도 거란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구실로 두 차례 더 침략해 왔으나, 고려는 이를 잘 막아 냈다. 특히, 강감찬은 거란의 3차 침입 때에 살아 돌아간 거란군이 겨우 수천에 이를 정도로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다(귀주 대첩, 1019).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13세기 몽골 항쟁이 벌어지며 최씨 무신 정권은 1232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40여년 간 저항하였다. 그러나 최씨 정권과 잔여 무인정권이 붕괴되어 개경환도하며 몽골과 강화하였다(1270).

이후 고려는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 자비령 이북에 동녕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라는 원의 통치 기구가 설립되어 넓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탐라총관부와 동녕부는 곧 고려로 다시 귀속되었지만 쌍성총관부는 반환되지 못하였다. 공민왕(1351~1374)은 원명교체기를 이용하여 반원자주 정책을 펼치고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이자춘, 이성계 부자의 내응)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1356).

13번

[정답] ④

* 조선의 지방 통치 조직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부.목.군.현으로 나누고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포함시켰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또한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부서로 중앙의 6조와 같이 6방을 두었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종2품 당상관 관찰사를 파견하였는데 이 또한 행정·사법·군사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고, 지방관은 임기제(관찰사 1년, 수령 5년)와 상피제(출신지에 부임 못함)를 적용하여 통제하였다.

한편, 군, 현 아래에는 면, 리, 통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몇 개의 자연 촌락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여기에 통수를 두어 통 내를 관장하게 한 오가작통제를 통하여 촌락 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14번**

[정답] ③

* 조선의 과전법

조선은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려 말의 사전 개혁으로 시작된 과전법(1391, 공양왕 3년)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법의 주된 토지인 과전은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권 토지로 원칙적으로 유력자의 토지 탈점을 막기 위하여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다. 총 18품의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의 토지를 차등 지급하였고,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16세기 중엽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다(1556).

③ 과전법과 직전법 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10분의 1을 농민에게 전조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1470, 관수관급).

**15번**

[정답] ④

*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

양반은 본래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양반 관료 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문·무반직

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부르게 되었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과거, 음서, 천거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으로서,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는 데 힘썼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의미한다(의관, 역관, 천문관, 율관, 산관, 화원).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으며,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 이들은양반 첩에게서 태어난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반직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① 조선 전기는 관영수공업 체제였다. 공장(工匠)은 모두 공장안(工匠案)에 등록된 관장(官匠)으로서 서울의 여러 관서와 지방의 감영·병영·수영 등에 소속되어 있었다. 관장은 공노비가 주를 이루었고 양민들도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관장들은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공장세를 내면 판매할 수도 있었고, 국역에 동원되는 기간 이외에는 사영수공업 활동을 자유로이 행하여 수공업의 발달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④ 조선의 과거제도는 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고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조선 전기의 중인은 좁은 의미의 중인들인 기술관을 말하며, 이들이 잡과를 많이 응시한 것은 대대로 실용학문을 배워서이지 과거 응시 제한 때문은 아니었다.

**16번**

[정답] ③

* 일제의 식민지 정책

㉣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된 토지조사사업(1910~1918)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 일제는 1910년 '회사령'을 제정하여,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1920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특수로 인한 일본 자본의 원활한 진출을 도모하고자 회사령을 철폐하였다.

㉠ 일제는 1930년대 들어 소작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키 위해 관제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1932~1940)을 전개하고,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 등을 통해 지주의 소작권 제한을 정부가 관리.규제하며 소작농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하며 지주들을 관치로 통제하려 하였다.

㉡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육군 특별) 지원병(1938),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17번**

[정답] ①

* 백제 귀족층의 모습

백제 사람은 상무적인 기풍이 있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고, 형법의 적용이 엄격한 점은 고구려와 비

슷하였다. 반역한 자나 전쟁터에서 퇴각한 군사 및 살인자는 목을 베었고, 도둑질한 자는 귀양 보냄과 동시에 2배를 물게 하였다. 그리고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에는 3배를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하였다. 백제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성(진씨, 해씨, 목씨, 사씨, 연씨, 협씨, 국씨, 백씨)의 귀족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중국의 고전과 역사책을 즐겨 읽고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였으며, 관청의 실무에도 밝았다. 투호와 바둑 및 장기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 지배층이 즐기던 오락이었다.

① 고대 국가들은 가부장적이어서  남녀 간의 간음에 대한 처벌이 쌍벌주의가 아니라 여자만 처벌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18번

[정답] ③

*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불국사 (1995.12)
- 창덕궁, 수원 화성 (1997.12)
-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경주 역사 지구 (2000.12)
- 조선 왕릉 (2009.6)
- 한국의 역사마을 안동 하회와 경주 양동 (2010.7)
- 남한산성 (2014.6)
- 백제 역사유적 지구(2015.7)

19번

[정답] ③

* 삼국 항쟁의 연대기

①, ②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한강에서 나라가 시작한 백제이다. 온조가 bc 18년 한성에 도읍한 이래 4세기 근초고왕(346~375) 때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개로왕 때에 한성을 고구려 장수왕(413~491)에게 빼앗기고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하며(475), 백제는 국력이 크게 위축되고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하며 국력이 완전 역전되었다.

③ 고구려는 7세기 들어서 중국의 통일왕조인 수.당의 대대적인 침략을 당하였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612), 양만춘의 안시성 싸움(645) 등에서 수와 당을 격퇴시켰으나, 국력이 소진되어 신라를 압박하치 못해 결국 나당동맹(648)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멸망으로 이어졌다(668).

④ 고구려가 중국의 수, 당과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백제는 선덕여왕(632~647)의 신라를 자주 공격하였다. 특히 의자왕(641~660)이 즉위하면서부터 싸움이 보다 격렬해져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고(642), 신라에서 당으로 가는 교통로를 끊기 위해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공격하였다.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되며, 오히려 나당동맹이 성사되고(648) 백제 멸망을 가속화시켰다(660).

20번

[정답] ③

* 고려의 중앙 정치기구

고려의 통치 체제는 성종 때에 마련한 2성(중서문하성, 상서성) 6부(이.병.호.형.예.공-부)제를 토대로 하였다.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최고 정무기관으로 중요한 국정 일반을 관장하고 국정을 심의.결정)을 두었고, 그 장관인 문하시중(종1품)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중서문하성은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재신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낭사는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상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으나 실질적인 장관인 좌.우 복야는 정2품임에도 불구하고 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허직 또는 한직으로 많이 이용되어 중서문하성에 종속되었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추밀, 2품 이상)과 왕명의 출납(승선, 3품 이하)을 담당하였고,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어사대는 풍기단속과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대간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능은 조선 시대에는 양사(사헌부, 사간원)가 담당하였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다.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구성되는 이 두 기구에서 도병마사는 국방.군사 등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고, 식목도감은 법제, 격식 등 시행규정을 다루는 입법 임시회의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21번

[정답] ④

* 동.서 분당(1575)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그 동안 향촌에서 세력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며,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림은 훈구.척신 정치에 대한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명종 때의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신진 사림은 원칙에 더욱 철저하여 사림 정치의 실현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두 세력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김효원을 비롯한 신진 관료가 중심이 되어 동인이 형성되었고, 심의겸 비롯한 기성관료가 중심이 되어 서인이 형성되었다. 붕당은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에서 비롯되었다(1575).

붕당의 학맥으로 볼 때 동인은 영남 지역에서 정치의 도덕성을 강조한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진 세력이 참여하여 서인보다 먼저 붕당의 형세를 이루었고, 이황 계열은 남인, 조식과 계열은 북인으로 분화되었다.

반면에,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기호학파를 형성하며 처음에는 동.서 양쪽을 모두 비판하며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동인들의 비판에 서인에 가담함으로써 비로소 붕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22번

[정답] ③

* 조선의 건국과 발전의 연대기

- 조선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로 태어난 태종 이방원(1367~1422)은 일찍이 정몽주를 제거하여 조선 왕조 개창에 크게 기여하였고(1392), 1차 왕자의 난(1398)을 일으켜 배다른 동생인 세자 방석과 건국의 최대 공신 정도전을 제거하고, 동복 형 방간의 2차 왕자의 난(1400)을 진압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왕위에 올랐다.

- 세종(1418~1450)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농업을 중시하여 공평한 조세부과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6년 동안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찬반의견을 물은 끝에 공법(貢法)을 마련하였다(1444). 이에 따라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또한 백성들이 쉽게 글을 쓰고 배울 수 있도록 한글(훈민정음)을 창제(1443)하고 반포하였다(1446).

- 세종 이후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곧,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이 넘어가자, 수양 대군은 계유정난(1453)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단종의 양위를 받아 후일 세조로 왕위에 올랐다(1455).

## 23번

[정답] ④

* 동학의 발생과 전개과정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인 최제우가 창도하였다. 동학에는 19 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 상황이 반영되었다. 교리는 유·불·선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또,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일본과 서양 국가의 침략을 막아 내자는 주장을 폈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 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조선의 지배층은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험하게 생각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그 뒤를 이은 최시형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어 교리를 정리하는 한편,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다시 교세가 커진 동학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는 물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로 퍼져 나갔다.

3대 교주인 손병희 때 이용구 등의 친일 세력을 내쫓고 천도교로 개편(1905.12)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④ 1909년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대종교가 나철에 의해 창시되어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24번

[정답] ④

* 이앙법이 유행한 조선 후기 농업상

조선 후기에는 고려 말에 일부 남부 지방에 도입되었으나 가뭄의 우려 때문에 조선 전기 정부에서 금지하던 모내기법(이앙법)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농민들은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

득이 증대하였다. 이모작이 널리 행해지면서 보리 재배가 확대되었고, 논에서의 보리농사는 대체로 소작료의 수취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보리농사를 선호하였다.

또한 이앙법은 농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광작의 유행). 지주들도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넓혔지만, 자작농은 물론 일부 소작농도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하여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이전보다 넓은 농토를 경작할 수 있게 된 광작 농업으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 부농이 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의 밭농사에서는 밭의 이랑에 파종하는 농종법 대신, 밭의 고랑에 파종하는 견종법이 유행하였다. 이는 방한과 보습에 유리하여 겨울작물인 맥류에 선호되었다.

또,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계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특히,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④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며 교환경제가 발달하고, 화폐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었으며, 숙종(1095~1105)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어졌다.

25번

[정답] ④

* 조선 시대의 법률제도

조선 시대에는 관습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 고려 시대와 달리, 경국대전과 대명률로 대표되는 법전에 의해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이 중에서 형벌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대명률의 적용을 받았다.

범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된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삼강오륜을 어긴 죄)였다. 이 같은 범죄에는 범인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심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고, 고을의 수령은 낮은 근무 성적을 받거나 파면되기도 하였다. 형벌은 태(볼기를 치는 매질), 장(곤장형), 도(징역형), 유(유배), 사(사형)의 5종이 기본으로 시행되었다.

민사에 관한 사항은 제반 소송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관찰사와 수령 등 지방관이 처리하였다. 초기에는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많았으나, 후기에는 남의 묘지에다 자기 조상의 묘를 쓰는 데에서 발생하는 산송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의 사법 기관은 행정 기관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중앙에는 관리의 잘못이나 중대한 사건을 재판하는 사헌부, 의금부, 형조와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그리고 노비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이 있었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관할 구역 내의 사법권을 가졌다.

26번

[정답] ②

* 여운형(1886~1947)에 대하여

중도적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인 몽양 여운형은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비밀단체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하여 위원장에 취임, 독립 운동을 전개했다.

이듬해 해방되자 조선총독부와 교섭하여 건국동맹의 기반을 확대하여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1945. 8.). 여기에는 민족주의 세력의 안재홍 등도 참가하였고,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국내 질서의 자주적 유지, 대중 생활의 확보(3개월분 식량 확보)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이를 기초로 9월 조선 인민공화국을 선포, 스스로 부주석이 되었으나 우익 진영의 반대를 받고, 이어 미군정의 인정도 받지 못해 실패하였다.

동년, 12월 인민당을 조직하였고, 이듬해에는 29개의 좌익 단체를 규합하여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 의장단의 한 사람에 선출되었으나 정책 노선이 명확하지 못해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고 반대파 좌익세력에게 밀려 탈퇴하였다. 또, 1947년 5월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였으나 극좌·극우 양측으로부터 소외당하였다.

한편 중도 우파인 김규식과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1947.7)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던 중 극우파 한지근에 의하여 1947년 7월 암살되며, 이 운동은 동력을 잃고 막을 내리었다.

① 김원봉(1898~1958)이 주도하여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③ 북한에 남북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 인물은 김구(1876~1949)와 김규식(1881~1950)이다.
④ 신간회 운동과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안재홍(1891~1965)이다.

27번
[정답] ①

* 유신 헌법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선언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직후인 10월에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제정한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로 확정짓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다.

유신 헌법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35조에 규정한 헌법 기구)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하고, 국회의원의 1/3을 선거하고(유정회 의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명령으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였다.

① 현행 헌법인 9차 개헌(1987)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하였다.
② 이런 헌법 규정은 없었고,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제정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은 대통령 궐위시 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 겸임하게 하였다.
③ 3차 개헌(1960) 때의 내각책임제 형태의 국무총리 선출 규정이다.

28번
[정답] ③

* 17세기의 연대기

인조반정(1623)을 주도하여 광해군과 북인을 축출한 서인 정권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도 비판하고,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또한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 평안도에 주둔하였던 이괄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1624)을 일으켰으나 진

압되자, 그 잔당들이 후금으로 피신하여 조선 침입을 종용하자,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왔다(1627). 이를 정묘호란이라 한다. 정봉수와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특히, 정봉수는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강화를 제의하여 형제관계의 화의와 조공과 국경에서의 관무역을 조건으로 철군하였다.

그 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군신 관계를 맺자며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1636.12). 이를 병자호란이라 한다.

인조는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45일간 항전하였으나, 청과 싸우자는 주전파(김상헌과 윤집. 오달제. 홍익한-삼학사)와 강화를 맺자는 주화파(최명길 등)의 논쟁 속에 결국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3배 9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찧음)를 맺었다.

그 동안 조선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도 오랑캐로 여겨 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거꾸로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리하여 청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효종(1649~1659)은 북벌을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다. 효종은 송시열, 이완 등과 함께 남한산성 및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대의 양성에 힘을 기울였으나,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이는, 청이 한족의 반발을 누르면서 중국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만주 북부의 헤이룽 강 부근에 러시아가 침략해 오자, 청은 이를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두 차례(1654, 1658)에 걸쳐 조총 부대를 출병시켜 큰 전과를 올렸다. 이를 나선 정벌이라고 한다.

29번

[정답] ②

*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일제는 이 때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과 제1차 영·일 동맹(1902)을 체결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 후,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선제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러·일 전쟁, 1904.2~1905.9).

이에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1904.2)를 강제적으로 체결하여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점령을 꾀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여 외교(스티븐슨), 재정(메가타: 화폐정리사업 추진) 등 각 분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어 한국 내정을 간섭하였다.

일제는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1905.8)을 맺은 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1905.9)을 체결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을사조약(2차 한일협약)을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설치하여 보호국으로 하였다(1905.11).

이에 고종은 을사조약 체결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였고(1907.6), 일제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이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통감이 한국의 고등관리를 임면하여 내정을 장악하고, 부속 비밀각서로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1907.7).

이어 사법권(기유각서: 1909.7) 과 경찰권(1910.6)을 빼앗은 후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한일병합: 1910.8).

30번

[정답] ④

* 정조의 업적

정조(1776~1880)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여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과 환관 등을 제거하였고(준론 탕평), 그 동안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소론과 남인 계열도 중용하였다.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한편, 친위 부대인 장용영(1793)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더 나아가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성 행차 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였다(상언.경쟁의 기회 확대) 또,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림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 하였다.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 정책을 시행하였다(신해통공: 1791)

왕조의 통치 규범을 전반적으로 재정리하기 위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고, 외교 문서를 정리한 동문휘고, 국가 각 기관의 기능을 정리한 탁지지, 추관지 등과 병법서인 무예도보통지(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편찬) 등을 편찬하여 문물제도를 재정비하였다.

④ 영조(1724~1776)는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31번

[정답] ③

* 임오군란(1882.6)

개항 후 일본 상인의 대량 수입으로 점차 쌀이 부족해진데다가, 때마침 1882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하층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 갔다.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하여 구식 군인(무위영. 장어영)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였다. 심지어 민씨 일파 등 집권층의 부패로 구식 군인에게 13개월 만에 월급으로 지급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 여기에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불만을 품었던 구식 군인들은 마침내 선혜청을 습격하며 임오군란을 일으켰다(1882.6).

구식 군인들은 흥선 대원군을 찾아가 지지를 요청했으며, 정부 고관들의 집을 부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 와중에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 죽었다.

그 후 서울의 하층민들이 가세하여 세력이 더욱 커지자, 구식 군인들은 왕궁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 등 고위 관리들을 처단하였다. 군인들이 궁궐에까지 침입하자 민비는 종적을 감췄고(장호원 피신)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다. 그러나 민씨 일파로부터 군대 파견을 요청받은 청은 일본의 무력 개입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군대를 출동시켜 군란을 진압했으며,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해 갔다.

또한 청은 군대를 주둔시키며,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고문 파견: 마건창, 묄렌도르프)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잔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굴복한 정부는 제물포 조약(1882.8)을 체결하여 사과 사절단의 파견(3차 수신사: 박영효), 주모자 처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 등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32번

[정답] ④

* 개항 이후의 근대 시설

- 보기의 자료는 최남선의 '경부철도가(1908)'이다,

1876년 개항 이후 개화정책에 따라 박문국에서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1883)를 발간하였고, 기기창(1883)에서는 서양무기를 제조하였으며, 전환국(1883)에서는 새로운 화폐를 주조하였다.

교통. 통신에서는 전신(1885)이 설치되면서 국제 전신망이 연결되었으며, 궁궐과 상류 사회에는 전화(1896)도 보급되었다. 문명의 불인 전등(1887)이 경복궁의 밤을 밝혔으며, 한성 전기 회사(1898)는 발전소를 세워 전차(1899:서대문~청량리, 이후 서울 도심 중심으로 확대, 부산. 평양에도 도입)가 다니게 되었고, 서울 시내 일부에 전기가 들어왔다. 철도는 경인선이 개통(1899:노량진~제물포, 1900:노량진~서대문)된 후 러일 전쟁(1904~1905) 중에 일본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 경부선(1905), 경의선(1906)이 부설되었다.

또한 서양 의학이 보급되면서 선교사 의료인인 알렌의 건의로 근대 의료 시설인 광혜원(1885년 1월 설립, 동년 3월 제중원으로 개칭, 1904년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을 비롯하여 많은 병원이 들어섰고, 서양식 건축물인 명동 성당(1898, 고딕 양식)과 덕수궁 석조전(1900, 르네상스 양식) 등이 세워졌다.

① 을사의병은 1905~1906 시기이다.

④ 노량진~제물포 구간은 전차가 다니던 구간이 아니라, 철도 기차가 다니던 구간이다.

33번

[정답] ②

* 신민회의 서간도 개척

신민회(1907~1911) 회원들은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11년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특히 신흥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농장을 건설하고 독립군을 편성, 훈련하였다. 경학사는 뒤에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면서 독립군(서로 군정서)을 조직하였다

②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러시아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聲鳴會)가 설립되었고, 1911년에는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군정기관으로 이상설, 이동휘 등은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활동을 준비하였으며, 러시아혁명(1917) 직후 전로한족회 중앙 총회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는 3·1 운동 직후 임시정부 형

태의 대한 국민 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34번

[정답] ②

* 동학농민운동(1894)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온 동학교도들은 교세가 확장되고 농민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이용하여 공주, 삼례, 서울, 보은 등에서 집회를 갖고, 동학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과 교조 최제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교조신원운동: 1892~1893).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녹두장군이라 불리우는 전봉준(1854~1895)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봉기(고부 봉기)하여 관아를 일시 점령하였으나 후임 군수 박원명의 회유에 의해 해산하였다.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에 의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여 4월 보국안민(나라를 도와 백성을 편안케 한다)과 제폭구민(부패한 관리를 제거하여 백성을 구한다)을 내세우며 다시 봉기하였다(1차 봉기: 무장 기포 -> 백산 봉기). 이후 황토현, 황룡촌에서 정부군에게 승리하며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한편 정부의 요청에 의해 청군이 출동하고 톈진조약에 의해 일본군도 출동하자, 6월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은 각지에 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천해 나갔다.

그러나 7월 일본군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경복궁을 점령하며 내정을 간섭하자, 농민군은 10월 다시 봉기(2차 봉기)하여 외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서울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조선에 파견된 우세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12월 공주 우금치에서 패하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35번

[정답] ④

* 일제시대의 의열 투쟁

<의열단 단원의 활약: 1919년 길림에서 김원봉 등이 설립>

1920 박재혁, 부산 경찰서에 폭탄 투척

1920 최수봉, 밀양 결찰서 폭탄 투척

1921 김익상, 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

1922 김익상, 상해에서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에 폭탄 투척

1923 김상옥, 종로 경찰서에 폭탄 투척

1924 김지섭, 도쿄 궁성과 이중교(二重橋)에 폭탄 투척

1926 나석주, 동척 및 식산은행에 폭탄 투척

<한인애국단 단원의 활약: 1931, 상해에서 김구가 설립>

1932.1 이봉창, 일왕 마차에 폭탄 투척

1932.4 윤봉길,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점령군 사령관 대장 시라카와 등 살상

④ 1920년 노인단 소속의 강우규는 6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울 남대문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여 살해에는 실패하였으나 많은 일본인들을 살상하였다(37명).

36번

[정답] ②

* 일제 하 역사 연구

-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1880~1936)는 <조선 상고사>, <조선 상고문화사> 등을 통해 단군·부여·고구려 중심으로 상고사를 체계화하였고 단군 숭배 종교인 대종교에 심취하였다.

- 1930년대에는 백남운 등에 의해 사회 경제사학이 대두되었다. 백남운(1895~1974)은 <조선사회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에서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여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1859~1925)은 '한국통사'(1915)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를 저술하며 개항 이후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특히 그는 일제에 빼앗긴 것은 '국백' 뿐이요, '국혼'이 살아있으면 광복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② 조선사연구: 정인보(1893~1950)가 단군에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고대사를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통사(通史) 형식으로 쓴 책이다.

* 안재홍의 저서는 <조선상고사감(朝鮮上古史鑑)>과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이 유명하며, 1930년대에 정인보 등과 함께 한국학 운동을 주도하며 <여유당전집>을 간행하였다.

37번

[정답] ①

* 독립협회의 헌의 6조(1898.10)

독립협회(1896.7~1898.12)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또,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자유 민권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1898.10).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① "나라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문물을 익히게 할 것"은 2차 갑오개혁 때인 홍범 14조(1894.12)의 내용 중 하나이다.

38번

[정답] ③

*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의 업적

백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346~375) 때에 크게 발전하였다. 이 때의 백제는 마한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여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사유라고 불리우는 고국원왕(331~371)을 전사시켰다. 또,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목라근자를 보내어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중국의 동진, 가야, 왜와 외교 관계를 맺고 고구려를 견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황해를 건너 중국의 요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 진출하여 활동 무대를 해외로 넓혔다(고대 해상권 형성: 서해 직항로 개척).

이와 같은 근초고왕의 업적에 힘입어 왕권이 전제화되어 부자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으며, 박사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書記)'를 편찬하였다(375). 그러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③ 백제는 침류왕 때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384).

39번

[정답] ④

* 조선 전기 사림의 향촌 지배 동향

조선 시대에 향촌 사회에서 지주로 농민을 지배하던 계층은 사족(士族)이었다. 사족(사림)은 도덕과 의례의 기본 서적인 소학을 보급하고,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며, 족보 편찬을 통해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족보는 가문의 내력을 기록한 것으로, 안으로 종족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 다른 집안이나 하급 신분에 대해 우월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족보는 혼인 상대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족(사림)들이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유향소였다.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다. 경재소는 중앙 정부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제도로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

또한 사족들은 향안을 작성하고 향규를 제정하였다. 향안은 향촌 사회의 지배층인 지방 사족의 명단으로,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에 각 군현마다 보편적으로 작성되었다.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족은 그들의 총회인 향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하였는데, 이들 향회의 운영 규칙이 향규였다.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또한 향교, 서원 등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사람을 주빈으로 모시고, 그 밖의 유생을 빈으로 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의식인 향음주례(鄕飮酒禮)와 예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세워 활을 쏘게 하는 향사례(鄕射禮)를 거행하였다.

④ 조선 후기 지방 양반(사족)들은 군현을 단위로 농민을 지배하기 어렵게 되자,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많은 동족 마을이 만들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우가 많이 세워졌다.

40번

[정답] ④

* 독도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서,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이어져 내려왔다.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통하여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한 사실과, 고려사에 태조 13년(930)에 우산국에서 방물을 고려에 바쳤다는 기록과 고려사 지리지(동계 울진현조), 조선 시대에는 세종실록지리지(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우산도-독도-를 울릉도 안쪽에 표기) 등의 문헌 등을 통해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유민을 막기 위해 울릉도민들을 본토에 옮겨 살게 하여(공도 정책) 한때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였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하는 거점으로 줄곧 활용해 왔다.

특히, 조선 숙종 때에는 동래에 살던 안용복이 이 곳을 왕래하는 일본 어부들을 쫓아 내고,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 나라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일도 있었다(1696).

그 후에도 일본 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이에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였다(1884).

대한제국 때에는 두 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도 관할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으나(1900.10.25.),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1905),

해방 후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1946.1)를 통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하였으나 우리 영토임은 선언하지 않은 모호한 상태였다. 다행히 1952년 이승만의 평화선 설정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선언하였고, 1953년 홍순칠의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까지 자국 영토임을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